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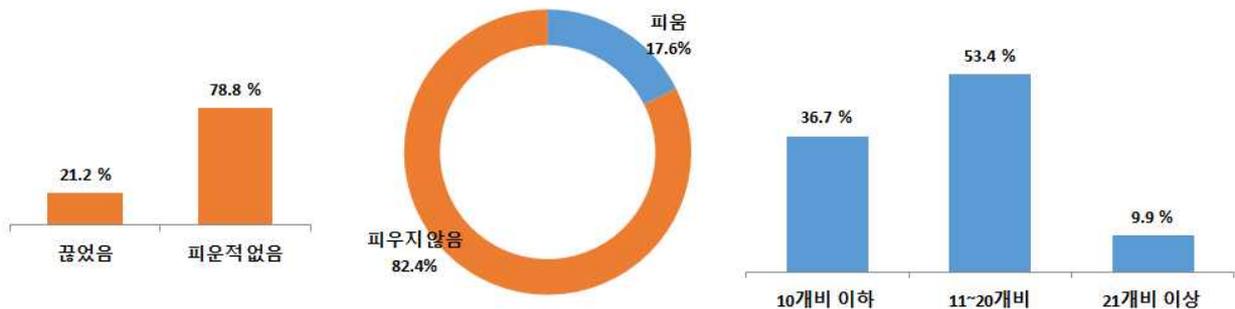
## 6 보건과 의료

### 1)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흡연자는 17.6%, 하루 평균 흡연량은 「11~20개비 이하(53.4%)」

- 담배를「피움」은 17.6%,「피우지 않음」은 82.4%임
-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11~20개비 이하(53.4%)」,「10개비 이하(36.7%)」,「21개비 이상(9.9%)」순으로 나타남
- 피우지 않는 사람은「피운적 없음」이 78.8%,「끊었음」이 21.2%임

<그림 6-1>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표 6-1>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단위: %, 개비)

	계	피움	흡연정도				하루 평균 흡연량	피우지 않음	흡연여부		
			소계	10개비 이하	11~12개비 이하	21개비 이상			소계	끊었음	피운적 없음
2017년	100.0	17.6	100.0	36.7	53.4	9.9	16.8	82.4	100.0	21.2	78.8
중부권	100.0	16.1	100.0	36.0	54.4	9.6	17.6	83.9	100.0	24.3	75.7
북부권	100.0	20.5	100.0	22.4	63.0	14.6	18.3	79.5	100.0	11.3	88.7
서남부권	100.0	17.4	100.0	47.1	46.0	6.9	15.1	82.6	100.0	23.8	76.2
남자	100.0	32.4	100.0	36.8	53.1	10.1	16.9	67.6	100.0	45.9	54.1
여자	100.0	0.7	100.0	28.7	71.3	0.0	14.1	99.3	100.0	2.0	98.0
15~29세	100.0	2.1	100.0	0.0	100.0	0.0	20.0	97.9	100.0	9.3	90.7
30~39세	100.0	32.6	100.0	46.6	53.4	0.0	14.9	67.4	100.0	13.5	86.5
40~49세	100.0	32.2	100.0	28.9	57.4	13.7	18.0	67.8	100.0	35.2	64.8
50~59세	100.0	25.3	100.0	31.3	50.7	18.1	18.7	74.7	100.0	22.7	77.3
60~69세	100.0	15.4	100.0	37.2	59.3	3.6	15.6	84.6	100.0	23.1	76.9
70세 이상	100.0	8.5	100.0	55.3	39.1	5.6	13.7	91.5	100.0	22.4	77.6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 2) 금연 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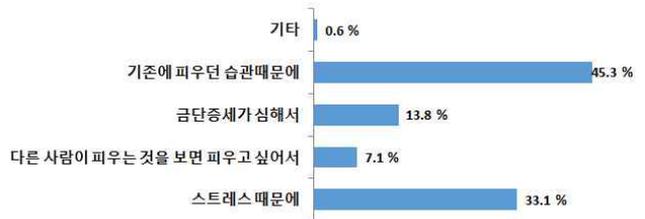
**흡연자의 지난 1년 동안 금연 시도 경험은 41.7%,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기존 피우던 습관 때문에(45.3%)」**

- 지난 1년 동안('16.8.24.~'17.8.23.) 금연 시도 경험이「있다」는 41.7%, 「없다」는 58.3%로 나타남
-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45.3%)」, 「스트레스 때문에 (33.1%)」, 「금단증세가 심해서(13.8%)」,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7.1%)」, 「기타(0.6%)」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30대 금연 시도 경험「있다(52.9%)」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금단증세가 심해서(62.3%)」로 나타남

<그림 6-2> 금연 시도 여부



<그림 6-3> 금연이 어려운 이유



<표 6-2> 금연 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단위: %)

	금연 시도 여부			금연이 어려운 이유					
	계	있다	없다	계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	금단증세가 심해서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기타
2017년	100.0	41.7	58.3	100.0	33.1	7.1	13.8	45.3	0.6
중부권	100.0	46.5	53.5	100.0	37.3	7.0	8.2	45.8	1.7
북부권	100.0	34.4	65.6	100.0	22.0	2.5	18.9	56.6	0.0
서남부권	100.0	42.4	57.6	100.0	35.2	9.9	16.3	38.5	0.0
남자	100.0	41.8	58.2	100.0	32.5	7.3	13.5	46.1	0.6
여자	100.0	34.3	65.7	100.0	68.1	0.0	31.9	0.0	0.0
15~29세	100.0	0.0	100.0	-	-	-	-	-	-
30~39세	100.0	52.9	47.1	100.0	44.0	0.0	0.0	56.0	0.0
40~49세	100.0	40.1	59.9	100.0	39.8	11.1	7.7	41.3	0.0
50~59세	100.0	43.0	57.0	100.0	34.2	6.1	13.1	46.6	0.0
60~69세	100.0	39.4	60.6	100.0	22.9	9.5	34.9	32.7	0.0
70세 이상	100.0	34.6	65.4	100.0	6.8	11.9	28.9	46.3	6.1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 3) 음주여부 및 음주횟수

술을 「마심(44.6%)」이고, 주로 「주1~2회(32.8%)」 마심

- 지난 1년 동안('16.8.24.~'17.8.23.)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 「마심(44.6%)」, 「마시지 않음(55.4%)」로 나타남
- 술을 마신 사람의 음주횟수는 「주 1~2회(32.8%)」, 「월 2~3회(26.1%)」, 「월 1회 이하 (16.8%)」, 「주3~4회(15.5%)」, 「거의매일(8.8%)」순임
  - 술을「마신다」는 남자(60.4%)가 여자(26.5%)보다 높게 나타남
  - 「주 1~2회 이상(주 1~2회+주3~4회+거의 매일)」은 남자(67.8%)가 여자(29.1%) 보다 높아 술을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과거 음주 경험은「마신적 없음(68.8%)」, 「끝었음(31.2%)」임

<그림 6-4> 음주여부 및 음주횟수



<표 6-3> 음주여부 및 음주횟수

(단위: %)

	계	마심	소계						마시지 않음	소계	끝었음	마신적 없음
			월1회 이하	월2~3회	주1~2회	주3~4회	거의 매일	소계				
2017년	100	44.6	100	16.8	26.1	32.8	15.5	8.8	55.4	100	31.2	68.8
중부권	100	30.9	100	12.0	31.1	28.4	15.2	13.2	69.1	100	31.5	68.5
북부권	100	54.2	100	15.9	24.5	35.6	15.4	8.6	45.8	100	23.2	76.8
서남부권	100	52.0	100	20.1	24.2	33.5	15.7	6.4	48.0	100	35.1	64.9
남자	100	60.4	100	12.5	19.7	36.5	19.3	12.0	39.6	100	51.1	48.9
여자	100	26.5	100	28.1	42.8	23.2	5.5	0.4	73.5	100	18.9	81.1
15~29세	100	35.1	100	40.7	37.6	21.7	0.0	0.0	64.9	100	10.8	89.2
30~39세	100	68.5	100	21.2	20.9	43.9	11.8	2.2	31.5	100	24.1	75.9
40~49세	100	66.7	100	9.0	18.0	38.7	22.2	12.0	33.3	100	25.9	74.1
50~59세	100	53.5	100	14.5	23.5	30.7	20.4	10.9	46.5	100	35.8	64.2
60~69세	100	40.0	100	11.5	30.3	29.8	17.5	10.8	60.0	100	37.9	62.1
70세 이상	100	25.8	100	15.3	33.1	28.9	10.9	11.7	74.2	100	36.9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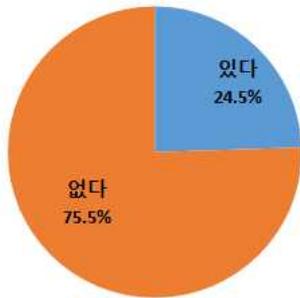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 4) 절주.금주 시도 여부 및 절주.금주가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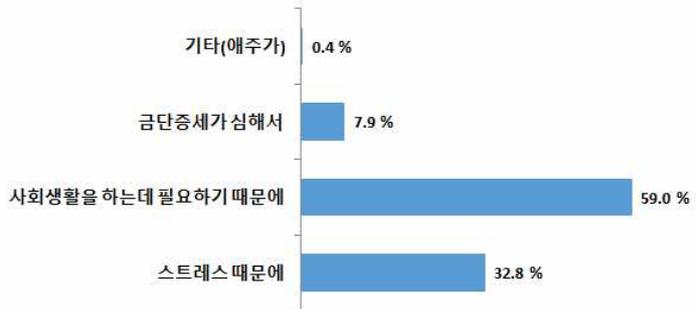
**술을 마시는 사람의 24.5%가 절주·금주 시도 경험 있음, 절주·금주가 어려운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59.0%)」**

- 지난 1년 동안('16.8.24.~'17.8.23.) 주 1~2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 중 절주나 금주를 시도한 사람은 24.5%, 시도한 적 없는 사람은 75.5%로 나타남
- 절주나 금주가 어려운 이유는「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가 59.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스트레스 때문에(32.8%)」,「금단증세가 심해서 (7.9%)」,「기타(0.4%)」순으로 나타남

<그림 6-5> 절주.금주 시도 여부



<그림 6-6> 절주.금주가 어려운 이유



<표 6-4> 절주.금주 시도 여부 및 절주.금주가 어려운 이유

(단위: %)

	절주.금주 시도 여부			절주.금주가 어려운 이유				
	계	있다	없다	계	스트레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 하기 때문에	금단증세가 심해서	기타
2017년	100.0	24.5	75.5	100.0	32.8	59.0	7.9	0.4
중부권	100.0	22.9	77.1	100.0	20.7	77.5	1.8	0.0
북부권	100.0	21.1	78.9	100.0	36.3	49.1	13.2	1.5
서남부권	100.0	27.5	72.5	100.0	36.9	54.9	8.2	0.0
남자	100.0	27.8	72.2	100.0	29.0	63.2	7.8	0.0
여자	100.0	15.9	84.1	100.0	50.0	39.9	8.2	2.0
15~29세	100.0	14.0	86.0	100.0	69.0	31.0	0.0	0.0
30~39세	100.0	33.6	66.4	100.0	42.3	57.7	0.0	0.0
40~49세	100.0	24.8	75.2	100.0	29.5	67.7	2.8	0.0
50~59세	100.0	28.4	71.6	100.0	26.8	66.6	6.6	0.0
60~69세	100.0	20.8	79.2	100.0	34.5	49.6	16.0	0.0
70세 이상	100.0	20.7	79.3	100.0	17.6	53.4	26.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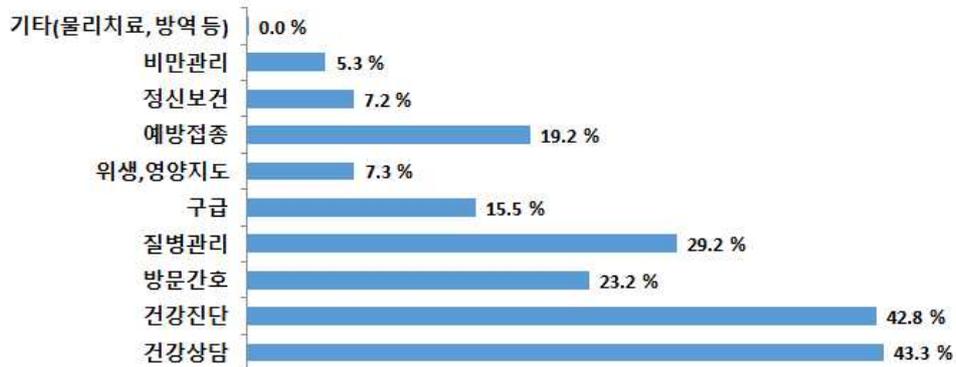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 5) 필요한 보건서비스

신안군민이 필요한 보건서비스는 「건강 상담(43.3)」과 「건강진단(42.8)」이 가장 높아

- 필요한 보건서비스는「건강상담」이 43.3%로 가장 높고,「건강진단(42.8%)」,「질병관리(29.2%)」,「방문간호(23.2%)」,「예방접종(19.2%)」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예방접종」, 30대, 40대, 50대「건강진단」, 60대, 70세 이상「건강 상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7> 필요한 보건서비스(복수응답)



<표 6-5> 필요한 보건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건강상담	건강진단	방문간호	질병관리	구급	위생,영양 지도	예방접종	정신보건	비만관리	기타
2017년	43.3	42.8	23.2	29.2	15.5	7.3	19.2	7.2	5.3	0.0
중부권	51.2	47.6	21.3	21.9	21.0	7.6	12.9	4.6	4.9	0.1
북부권	41.0	36.6	29.1	33.6	11.6	9.8	22.0	7.5	1.9	0.0
서남부권	36.8	41.9	21.8	33.5	12.6	5.7	23.7	9.7	7.4	0.0
남자	41.3	44.7	21.4	29.7	18.6	6.2	21.5	6.5	3.0	0.1
여자	45.4	40.6	25.3	28.6	11.9	8.5	16.6	8.1	8.0	0.0
15~29세	34.1	36.0	5.7	24.3	22.3	5.4	38.5	16.7	10.2	0.0
30~39세	36.6	49.3	15.7	27.9	22.4	5.8	23.3	4.8	7.2	0.0
40~49세	34.6	41.9	22.7	26.5	18.5	9.8	20.3	10.5	8.5	0.0
50~59세	42.9	46.7	19.3	31.5	12.7	7.8	20.2	5.3	6.6	0.0
60~69세	48.0	43.3	24.9	35.2	13.3	6.5	14.3	4.1	3.2	0.3
70세 이상	52.2	41.5	37.7	28.0	11.5	7.7	9.1	4.7	0.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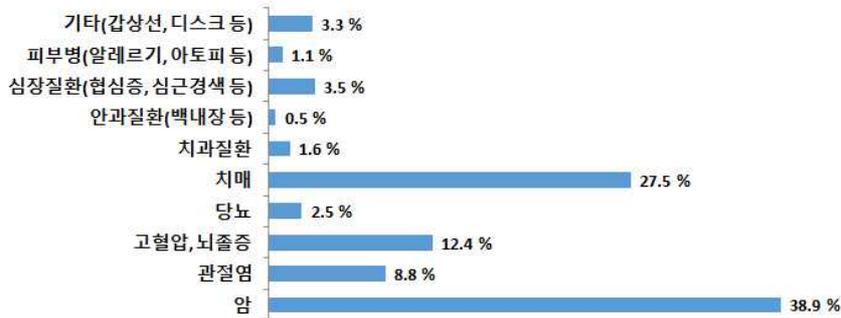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 6) 걱정되는 질환

## 걱정되는 질환은 「암(38.9%)」, 「치매(27.5%)」의 순임

- 걱정되는 질환은「암(38.9%)」,「치매(27.5%)」, 「고혈압, 뇌졸중(12.4%)」,「관절염(8.8%)」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자는「암」, 여자는「치매」를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암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아지며, 반대로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고혈압, 뇌졸중은 5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60대와 70세 이상은 관절염에 대한 걱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lt;그림 6-8&gt; 걱정되는 질환



&lt;표 6-6&gt; 걱정되는 질환

(단위: %)

	계	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	치매	치과질환	안과질환(백내장 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	피부병(알레르기, 아토피 등)	기타(간질 등)
2017년	100.0	38.9	8.8	12.4	2.5	27.5	1.6	0.5	3.5	1.1	3.3
중부권	100.0	34.9	8.9	11.4	1.9	30.4	1.4	0.6	3.4	0.0	7.0
북부권	100.0	49.9	6.2	8.6	1.9	25.6	2.3	0.0	2.3	2.9	0.4
서남부권	100	36.1	10.4	15.5	3.4	25.8	1.4	0.8	4.2	1.0	1.4
남자	100.0	41.4	6.2	17.6	3.0	19.3	1.7	0.6	4.6	0.9	4.6
여자	100	36.0	11.8	6.5	1.9	36.8	1.5	0.4	2.2	1.2	1.7
15~29세	100.0	55.4	1.5	17.1	0.0	10.4	1.5	0.0	3.6	3.4	7.0
30~39세	100.0	57.7	4.4	7.5	0.0	17.3	4.7	0.0	0.0	2.8	5.6
40~49세	100.0	45.4	2.1	13.3	5.0	21.0	1.4	0.7	6.6	1.7	2.7
50~59세	100.0	36.4	7.2	15.9	2.6	28.2	2.0	1.1	3.8	0.0	2.8
60~69세	100.0	34.8	12.5	12.6	3.2	31.1	0.8	0.3	2.6	0.0	2.0
70세 이상	100	24.6	16.6	8.2	2.7	40.6	0.9	0.7	3.2	0.4	2.0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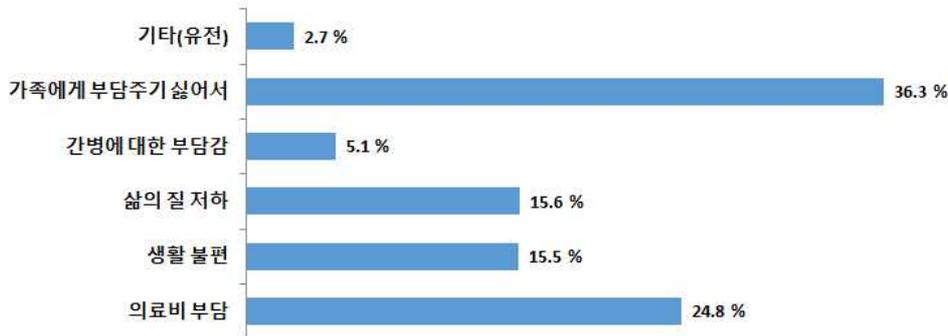
## 7)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는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36.3%)」, 「의료비 부담(24.8%)」의 순으로 나타남

○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는「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36.3%)가 가장 많았고, 「의료비 부담(24.8%)」, 「삶의 질 저하(15.6%)」, 「생활불편(15.5%)」, 「간병에 대한 부담감(5.1%)」, 「기타(2.7%)」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15~29세는 「건강하기 때문에」, 30대, 40, 50대, 60대, 70세 이상은「검진비용 때문에」를 가장 많이 응답함
-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이 「검진비용」을 걱정하는 비율이 높음

<그림 6-9>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표 6-7>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단위: %)

	계	의료비 부담	생활 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감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기타(유전)
2017년	100.0	24.8	15.5	15.6	5.1	36.3	2.7
중부권	100.0	28.9	13.5	6.6	3.1	42.0	5.9
북부권	100.0	21.4	20.5	13.7	10.2	34.2	0.0
서남부권	100	22.9	14.5	25.2	4.0	32.1	1.4
남자	100.0	24.1	14.7	17.2	4.9	34.9	4.3
여자	100	25.6	16.4	13.8	5.3	37.9	1.0
15~29세	100.0	30.1	11.6	21.0	6.1	24.1	7.0
30~39세	100.0	33.8	10.8	10.7	3.1	36.1	5.6
40~49세	100.0	23.2	11.6	20.4	5.4	35.3	4.2
50~59세	100.0	24.8	19.4	18.8	3.8	30.7	2.5
60~69세	100.0	22.0	16.3	15.5	7.4	38.3	0.5
70세 이상	100	21.5	17.7	9.6	4.5	46.4	0.4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주. 지난1년 간(2016.8.24.~2017.8.23.) 암 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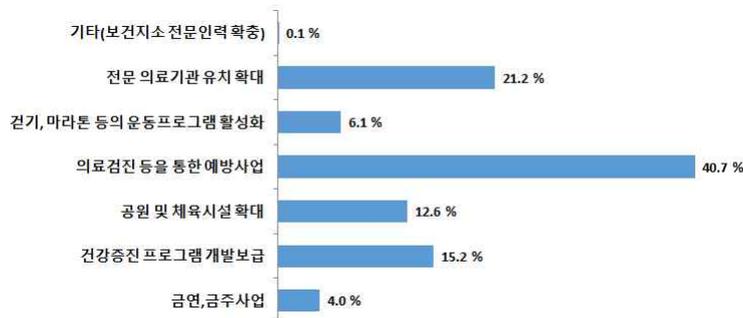
## 8)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해야 할 사업

건강 프로그램 사업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의료검진을 통한 예방사업 (40.7%)」

○ 건강증진사업 확대에 필요한 프로그램은「의료검진을 통한 예방사업」이 40.7%로 가장 많고, 「전문의료기관 유치 확대(21.2%)」,「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보급(15.2%)」,「공원 및 체육시설확대(12.6%)」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부권은 「전문의료기관 유치 확대」, 중부권은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보급(17.3%)」, 서남부권은 「운동프로그램 활성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6-10> 건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해야 할 사업



<표 6-8>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해야 할 사업

(단위: %)

	계	금연, 금주 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공원 및 체육시설 확대	의료검진 등을 통한 예방사업	걷기, 마라톤 등의 운동프로그램 활성화	전문 의료기관 유치 확대	기타 (보건지소 전문인력 확충)
2017년	100.0	4.0	15.2	12.6	40.7	6.1	21.2	0.1
중부권	100.0	5.3	17.3	11.6	45.6	4.2	16.1	0.0
북부권	100.0	4.9	13.5	12.2	33.8	4.2	31.3	0.2
서남부권	100.0	2.4	14.2	13.8	40.2	9.1	20.1	0.1
남자	100.0	4.8	15.8	13.9	37.8	8.0	19.6	0.2
여자	100.0	3.1	14.5	11.2	44.1	4.0	23.0	0.0
15~29세	100.0	5.5	21.7	26.6	30.6	4.2	11.4	0.0
30~39세	100.0	3.6	10.0	18.0	37.6	16.5	14.3	0.0
40~49세	100.0	5.3	16.7	20.7	20.9	12.2	24.3	0.0
50~59세	100.0	4.5	15.5	10.4	42.7	5.0	21.9	0.0
60~69세	100.0	4.3	11.8	8.6	49.6	4.5	20.8	0.5
70세 이상	100.0	2.3	14.8	3.6	50.0	2.4	27.0	0.0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주. 지난1년 간(2016.8.24.~2017.8.23.) 암 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